

## 신념 나무

달린 커닝햄과 던 거슬린(by Darlene Cunningham with Dawn Gaus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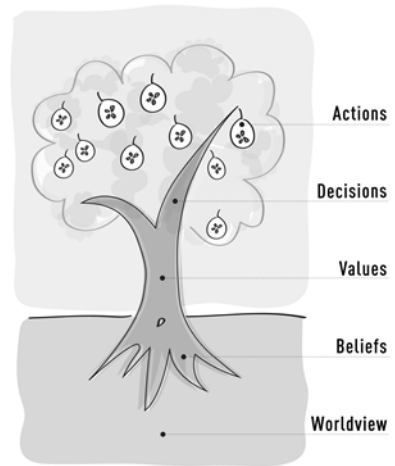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은 예수님의 비전과 가치를 가진 이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는 방식으로(딤후 2:2)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늘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전에도 지금도 모든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고(막 16:15),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고(마 28:19) 남아있는 열매(요 15:16)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YWAM과 U of N의 부르심이며 모든 제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선하고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YWAM에게 주신 비전과 가치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재 생산 할 수 있을까요? 잘 조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뒤에 배우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신념들과 우리 선교 단체의 가치들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델을 모방할 뿐이고 “왜”라는 질문들에 결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왜 믿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믿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사역,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무, 토양, 포도나무, 가지치기, 열매, 잎사귀, 씨앗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는 ‘열방을 제자화하는 연맹 (Disciple Nations Alliance)’의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에게서 “신념 나무”의 비유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열매가 뿌리와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이래로 이 삽화를 개발하여 내가 강의하는 거의 모든 것에 기초로 사용합니다. 이 간단한 삽화는 개인적으로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사역의 열매를 평가하는데 지표-잣대-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Belief Tree



나무를 생각해 보면, 토양은 세계관을 의미하고 뿌리는 기초적인 신념들을 줄기는 가치들을 대표하고 가지들은 우리의 의사 결정을 대표하고 열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씨앗은 생명을 재생산하는 유전 인자를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의 첫 씨앗의 유전 인자(DNA)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건강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전 인자(DNA)는 뿌리에서 나와 나무 줄기를 타고 가지를 따라 열매로 흘러가야 합니다....열매 속의 씨앗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토양 = 세계관

나 자신과/혹은 다른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내가 자란 환경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심지어 아주 미묘하게라도 당신의 가족과 문화와 사고체계에 영향을 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나무가 자라 온 토양인 것입니다. 정령 숭배인가요? 힌두? 무슬림?... 아니면 세속적 인본주의인가요? 이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안경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세계는 유대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중심이야. 느낌이 좋으면 그냥 해. 진리는 상대적이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라고 생각하게 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의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습한 세계관은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일렬 정렬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첫 4개의 기본적인 진리들은 모든 성경 학자들이 공유하는 명제들입니다. YWAM은 라브리(L'abri)의 설립자인 프란시스 쉐퍼 박사(Dr. Francis Schaeffer)로부터 이 성경적 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선교 단체의 목적을 확인하는 다섯 명제를 더했습니다.

1)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인격적으시다. 절대적으로 한계가 없으시며 측정할 수 없는 분이시며 창조된 존재가 아니며,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또한 지성과 뜻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관계적 존재이시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며 인격적인 분이시다.

2) 남자와 여자는 유한하며 인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 창조된 인격적 존재들(지성과 뜻과 감정을 가진)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점과 정의할 수 있는 한계들을 지닌 유한한 존재이다.

3) 진리는 변함이 없으며 인식할 수 있다. 진리는 바뀌지 않으며 절대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4) 선택은 중요하고 결과를 가져온다. 선한/옳은/ 현명한 결정들은 내린다면 보상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나쁜/잘못된/죄된 결정들은 형벌과 사망으로 이끈다.

5)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은 선교적 메시아이시며, 그의 영은 선교적 중재자이시며 그의 말씀은 선교적 책이다.

뿌리 = 신념

뿌리는 나무의 뿌리들은 우리의 기본 신념이기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부터 자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념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 뿌리 체계의 다른 요소들은 하나님의 본성(하나님이 누구이신에 대한 본질 즉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 부재하심 등)에 대한 진리와 그의 성품(그 본성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로 선택하시는 지 즉 그는 사랑이시면 친절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등)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끝없이 광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뿌리들만 묘사하는데에만 많은 책을 써야할 것이고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고 삶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깊은 뿌리를 개발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우리가 훈련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YWAM의 제자 훈련 학교(Discipleship Training School)에서는 우리의 기본 신념들의 뿌리 체계를 가르치고 씨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국제 제자 훈련 학교(DTS) 센터에서 만들고, YWAM 국제 리더십 포럼에서 승인한 교육과정은 강한 뿌리를 만들 수 있는 탁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www.ywamdtscentre.com](http://www.ywamdtscentre.com))

하나님을 진실로 알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그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고귀하며 최고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하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다는 것을 알면서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 줄기 = 가치들

YWAM에서는 “기본 가치들”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의 YWAM 사람(YWAMer)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 이 가치들을 식별하고 직접 기록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세계관과 같은 신념체계를 가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가치들이 우리가 강조하는 신념들로부터 자라고 명확하게 해 준다는 이유때문에 나는 “신념나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부터 줄기가 자라는 것이 아니 듯이 가치들도 시작점은 아닙니다.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시작점은 첫째로 우리 삶에 심으신 예수님의 씨앗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등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하신 뿌리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YWAM 기본 정신 14번은 “YWAM은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인류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 가지 = 결정들

나무의 큰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의 결정을 내리는 원리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정들은 우리 가치들을 반영한 것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힘을 잃게 됩니다. ‘강점 찾기(Strength finders)’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소개한 질 게럿(Jill Garrett)은 우리의 목적, 비전, 신념들, 가치들과 행동들 사이의 연속성을 묘사하기 위한 “정직함(integrity)”이라는 단어를 건축학적 정의를 사용합니다. 구조가 견실하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서로와 주님의 말씀에 일렬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한 정책 (즉 공동의 의사 결정)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대개는 우리가 가치있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들과 행동들은 우리의 신념들과 가치들에서부터 탄생해야 하며 그것들은 빈틈없이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실행 했을 때, 우리의 영이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치 있다고 여긴다면 당연히 그렇게 결정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 실제로 있었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운영부 리더로 있었던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은 경험이 많고 연륜 있는 간사님에게 차량 배차 부서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25세 이하는 YWAM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차량 보험 회사를 바꿨을 거고 그 보험회사가 엄격한 요구 조건을 걸었나 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규칙들이 너무 엄격해서 이 새로운 규칙이 생긴 이유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새로운 제한 생긴 이유는 무엇이죠?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험 회사를 바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둘 다 아니었고 나이 어린 운전자들은 나이 많은 운전자 보다 더 부주의하고 무책임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던 차량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나이 제한을 올려서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년들과 선교하는 단체(YOUTH With A Mission)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여섯 번째 가치는 “YWAM은 청년들을 지지한다” 입니다. 우리는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치라고 도전하면서 뺨을 운전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운전을 할 사람들은 운전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자동적으로 «청년들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베이스나 학교에서 내린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을 가지며 내게 “달린, 이 결정 혹은 저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국제적인 선교 단체로서의 부르심을 나타내죠?”라고 질문하는 신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념들과 가치들과 결정들과 행동들에 일관성이 있는지 성실하게 들여 다 볼 필요가 있는 “재 정렬”하시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YWAM의 지도자들이 열방 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의 전 과정에 일주일에 적어도 세 시간 이상의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규정을 “정책”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일까요? 이것이 만약 우리의 가치들과 신념들과 분리된 “규율”일 뿐이라면, 기도는 완전히 생명이 없는 죽은

행실이 됩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힌두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무한하시다는 우리의 뿌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며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양방향 의사 소통을 할 때 우리는 기도를 가치로 여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함께 창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할 때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 깨닫고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창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기도 생활은 변할 것입니다!

### 열매 = 행동들

열매는 나무의 생명력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들과 행위들이며 단체에서는 프로그램과 관행들입니다. 건강한 나무안에는 뿌리가 생명을 주는 영양들을 나무 줄기를 거쳐 가지로 전달하고 그 생명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들에서도 끝까지 남아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합니다.

열매가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건강한 미래 세대를 재 생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유전 암호인 유전 인자(DNA)를 운반합니다. 열매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열리고 각 열매들은 독특하지만 같은 유전 인자(DNA)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종류의 나무를 재 생산합니다. 아마 “사과 안에 들어 있는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안에 든 사과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 학교(DTS)와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의 신념들과 가치들과 원리들을 나타내야 하는 사역 나무의 열매입니다. 모든 사과가 다 사과라고 할지라도 각 각의 사과가 독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다 다를 것이고 필요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제자 훈련 학교(DTS)는 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방법들과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학교마다 그의 영광 창조성에 신선함을 주입하시기 원하지만 그것들은 제자 훈련 학교(DTS)와 YWAM의 유전 암호인 유전 인자(DNA)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사람들은 제자 훈련 학교(DTS)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는 YWAM이라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타 단체나 교회에서 YWAM DTS의 요소를 뽑아 쓰거나 비슷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성경적 신념은 비슷할지라도 모든 조직의 가치들이 다르기에 그들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독특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면서 자라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직함”은 우리의 세계관, 신념들과 가치들과 결정들과 행동들이 끊어짐 없이 하나로 흘러나올 때입니다. 우리의 행동들과 행위들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과 분명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흐름은 “깨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개인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관습으로서 로렌과 나는 가끔 YWAM 사람(YWAME)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 후에, 여러 사람이 청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알루미늄 소다 캔을 한 가득 들고 있던 젊은 리더가 “달린, 재활용을 하시나요?”라고 물어보았고 “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믿지만 안하고 있지요.”라고 답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호흡이 가빠짐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신념 나무’에 대해서 가르쳐 온 사람이 아니던가! 그에게 도리어 “방금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나요? ‘믿기는 하지만 하지는 않는다!’”라고 물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실행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바로 다음 날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물병, 유리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재활용 분류 통을 구입 했고 그날 이후로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가지치기의 목적

요 15장에서 가지치기와 결실 사이에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그분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를 나에게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다듬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 모든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롬 11:16b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만약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가지들도 거룩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나무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을 잘라 내실 것이고 만약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

가지 치기를 하실 것이고 만약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거짓 신념으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그 나무를 송두리째 뿌리까지 뽑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과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고 더 나은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를 가지 치기 하십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물어야 하는 좋은 질문은 “나는 경건한 신념들과 가치들로부터 벗어났는가?” 입니다.

나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데이빗 해밀턴은 신념 나무 강의에 당신의 삶에서 실제적인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세계관 = 무엇이 실재인가

이것은 실재에 생각을 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환경으로 인해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신념들 = 무엇이 진리인가

“하지만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는 같은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정직함’이 있다면 그렇지만 ‘정직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실재라고 생각되는 것과 실제로 진리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독교의 기초 진리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진리는 존재하며 변함 없으며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정령 숭배를 하기 때문에 바위, 바다, 사자 등 자연 만물에 영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재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당신이 아픈 것은 누군가 당신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정령 숭배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될 때 그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병에 걸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그들은 악령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실재로 종종 빨리 회귀합니다. 그리고 종종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당에게 돌아갑니다.

이 혼합주의(서로 반대되는 신념체계의 혼합)는 정직함을 반대로 일합니다. 모든 문화와 개인은 혼합주의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성숙할 때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식별하고 제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치 = 무엇이 선택가

진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선택하고 여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왜 다른가요?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여기면 그것이 바랄 만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내적 기쁨이 있습니다.

YWAM의 18가지 가치들을 읽으면서, 한가지를 읽으며 “이것을 이뤄야 해” 혹은 “이 부분은 더 노력해야 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것을 옳은 원리나 진리로 보고 있다는 표시가 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살아가야 할 규범이라고만 생각하는 한 이것은 아직 개인의 가치로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원리에 입각한 결정들과 정책들 =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한번 당신이 어떤 진리를 포용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었다면 그것은 옳은 결정과 정책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저 규칙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된 제자도의 결과로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내적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기반하여 내면을 다스리고 스스로 도덕성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들 / 프로그램들 = 무엇이 지혜로운가

이 모든 것들이 정렬되면 우리의 행동들과 행위들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지도자는 실재와 진리와 옳고 선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결정을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직함이 온전한지 혹은 균열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념 나무의 각 단계에 통찰력을 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왜? (WHY?)” 이것은 기초들/명제들로 이끄는 발견을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YWAM차량 운영을 금지했던 규정에 대한 달린의 예를 다시 들여 보고 행동에서 세계관의 명제까지 인도해 주는 '왜?'라는 질문을 사용해 봅시다.

행동: 젊은 사람들은 YWAM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왜? 정책의 오류 때문이다.

왜 정책이 잘못되었는가? 젊은이들을 지지하는 우리 단체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젊은이들에게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리아, 디모데, 다윗, 사무엘, 다니엘, 요셉... 모든 제자들 같은 젊은이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25세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부분으로 내려 올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것 없이는 명철을 얻을 수도 없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념들과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모델을 모방하고 생명은 없어져 곧 죽은 행실이 됩니다.

반대로 뿌리부터 열매로 올라가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SO WHAT?)” 이 질문은 함축된 의미들/적용들을 이해하는 데로 이끌어 줍니다.

세계관 -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써 기도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 번활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한다: 잠, 식사, 사회 활동 등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 시간을 조정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일치한다: 나는 기도하는 삶의 스타일을 세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까닭은 진리가 옳기 때문에 곧장 달려들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기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행한다면 쉽게 실패하게 됩니다.

성령께 당신의 삶을 살피시고 정직성이 결여된 영역을 보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생각과 지성을 변화 시켜 주시길 초청하여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왜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반드시 신념들과 가치들과 원칙에 기반을 둔 결정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들과 가치들과 원리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거나 이유를 모른다면, 답을 찾아보고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 삶과 사역들의 열매가 진실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편과 아내와 두 십대 아이들 둔 YWAM/U of N 코너에서 제자 훈련 학교(DTS)를 하면서 나의 신념 나무 강의를 들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족이었고 남편은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사결정에 대한 수 많은 강의를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셨고 온 가족이 신념 나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의사 결정을 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념들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간단하지만 실제적인 틀을 주었습니다. 제자 훈련 학교(DTS)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그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의 신념들과 가치들, 결정과 행동을 하는 원리들을 정하면서 가족 신념 나무를 만드는데 아일랜드에서의 2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큰 종이에 나무를 그려서 주방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가장 자주 모이는 주방에서 그들은 함께 가족들이 모여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를 평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때때로 아이들의 행동들 뿐 아니라 부모들이 그들이 믿고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자녀들이 점검해 주기를 초청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바에 따라 일치하는 지 아닌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사역들의 ‘정직함’을 확인하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도구인가요!

목상과 연구를 위한 성경 구절:

시 1:1-3, 골 2:6-7, 마7:15-23, 마13:1-9, 렘 17:7-8, 사 61:3,11, 요 15:1-17, 골 2 -3, 롬 11:16

© 2005, 2007, 2011, 2012, 2014, 2018 & 2020 Darlene J. Cunningham and Dawn E. Gauslin,  
Youth With A Mission. All rights reserved.